

조선/기계/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
jungha.oh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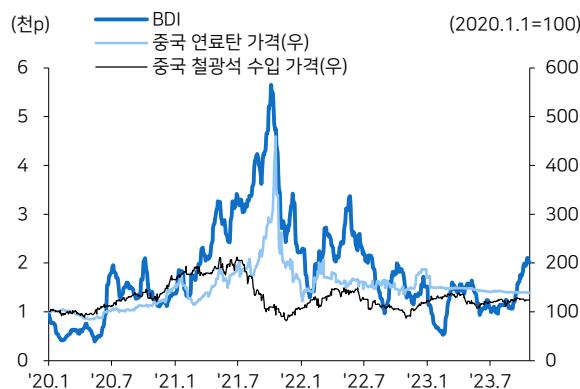
2023. 10. 31 (화)



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건화물운임(BDI)

1,502.0p(-61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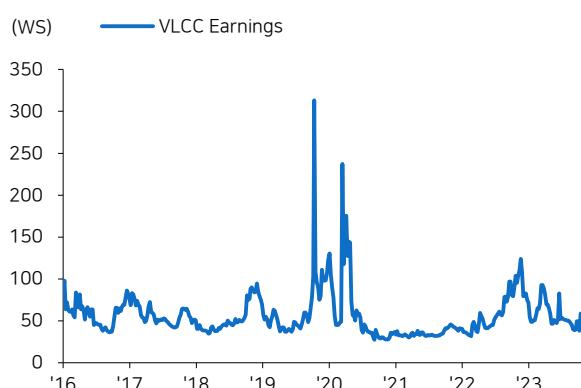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

1,012.6p(+94.9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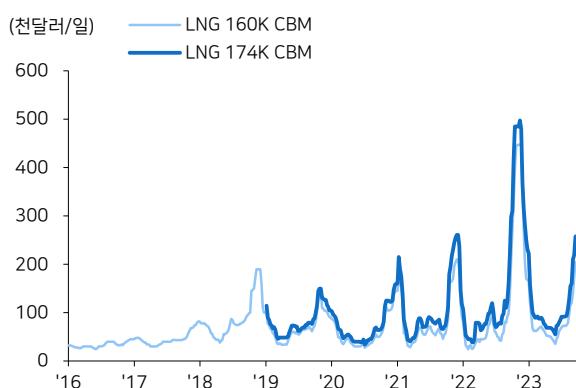


VLCC Spot Rate

59.0p(+3.5p WoW)



LNG Spot 운임

158.8천달러(+18.8p WoW)
188.8천달러(+13.8p WoW)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76.0p(+0.1p WoW)
150.3p(+0.2p WoW)

중국 내수 후판가격

524.0달러(+3.0p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현대삼호중공업, 원유운반선 2척 2,318억원에 수주

현대삼호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. 수주액은 약 2,318억원으로 2026년 3월까지 인도될 예정임. 척당 8,540만달러수준으로 알려짐. (조선Biz) (<https://tinyurl.com/8tkrbm>)

Maersk lines up order for 10 very large ammonia carriers as it dives back into gas

AP Moller-Maersk가 11억달러규모 VLAC(대형 암모니아선) 10척 발주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됨. 현대삼호중공업과 93,000CBM급 4척 확정분에 대한 LOI를 체결했다고 알려짐. 해당 4척은 2027년까지 분기에 한 척씩 인도될 예정임. 옵션분은 2028년에 인도될 예정임.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입찰에 초대되었다고 알려짐. VLAC의 선가는 척당 1.10~1.12억달러로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tinyurl.com/2zjpszw5>)

Surging suezmax rates outstrip VLCCs from the US Gulf Coast

겨울철이 다가오며 Suezmax 탱커 미주 걸프만-유럽 항로 운임이 11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보도됨. 동부로 가는 VLCC 운임을 상회하고 있다고 알려짐. 중형탱커 운임은 7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로 선복량이 중동 걸프만, 지중해 및 대서양 지역에 몰리며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, 겨울철 수요 운임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짐. 제재 이전 대비 교역 마일 수 증가 효과도 있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0cgpo>)

시간이 벌커 시장 치유제

IMO의 배출 규제를 준수하면 향후 2년간 실질적인 벌커 공급량은 연간 최대 2%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됨. 수요 감소에 따른 선복량 증가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짐.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2025년에는 물동량 1.5% 증가, 톤마일 기준 2% 성장하는 반면 선대 증가율은 1% 미만에 머물 전망으로 언급됨. 현재 글로벌 벌커 선대의 평균 항속은 전년동기 대비 1.7% 감소했다고 알려짐. (선박뉴스) (<https://tinyurl.com/yby476k4>)

아시아나, 화물사업 매각 이사회 결론 못내… 11월초로 미뤄

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30일 '화물사업 매각' 안건을 논의했지만,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고 보도됨. 이번 주 내로 다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알려짐. (조선일보) (<https://t.ly/YdiSF>)

대한항공, 4조 들여 신규 항공기 20대 구매

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A321neo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. 4.9조원을 투입해 A321neo 항공기가 50대로 늘어났다고 알려짐. 해당 기재는 182석 규모의 협동체 소형 항공기로 알려짐. (뉴스1) (<https://tinyurl.com/327cxzna>)